

다층적 의미 동시대 추상미술, 본질을 묻고 답하다

내달 2일까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기획전 '抽象, ABSTRACT, 추상'

추상(抽象). 여러 사물 또는 개념 따위의 개별자들로부터 공통점을 파악하고 추려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동양이나 서양에 나타난 추상의 어원적 의미에는 모두 대상으로부터 본질적인 것, 명료한 것을 응축해 끌어내며 비가시적인 세계를 상징화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은 전후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프랑스 앵포르멜 추상형식이 거의 동시에 유입, 새로운 미술형식으로 공존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추상미술의 시작이 서구의 추상미술 영향을 받아 출발했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다.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로 확장하고 있는 동시대 추상미술 양상이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다음달 2일까지 무안군오승우미술관(관장 박현화)에서 열리는 '抽象, ABSTRACT, 추상'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추상의 어원적 의미, 동양사상의 전통과 정체성 그리고 전후의 여러 심리적 요인과 변화된 시각적 현대성이 갈등과 기대로 교차하는 중 우리의 추상미술이 배태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참여작가인 강운의 작품 속 형상과 색은

중의적이지만 이내 합일을 이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작가의 시선은 구름이나 물방울, 공기와 같이 가변적이고 연약한 대상에 머물러 있다. 작가로부터 시작된 상처나 아픈 기억은 대상에 투사되고 관조와 사유, 치유의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출품작 '파랑' 연작은 여수 섬 장도에서 진행된 레지던시 기간 그려진 것이다. 3백여 개 섬으로 둘러싸인 여수 바다의 색인 동시에 천태만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하나의 빛으로 그린 추상화다.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의 '자연생성기'에는 코끼리, 로봇토끼, 식물, 알 수 없는 기호와 텍스트 등 평면 드로잉이 등장한다. 이 드로잉은 1초에 30여 작품이 유영하듯 입체적으로 구현된다. 거친 선으로 그려진 형상들은 원시성을 표현하며 인간과 비인간이



신도원작 '자연생성기'

평등하게 공존하는 문명 이전의 순수한 생태계를 드러낸다.

임남진의 '연서', '오래된 편지', '든 자리 난 자리' 연작은 최근 제작된 추상 작품이다. 그녀의 이전 작업인 감로탕화에서 보여준 삶의 끝없는 이야기는 고스란히 접힌 상징적인 쪽지 안에 감춰져 있다.

정정주는 빛의 움직임과 형태를 입체적인 구조로 추상화해 시각과 응시로부터 벗어나는 소외와 갈등, 초월적 존재인 숭고에 이르기까지 그 실재와 상징적 의미에 천착한

다. 풍부한 자연과 태양으로 가득한 남도의 빛은 역사의 상처와 갈등을 미적 아름다움으로 승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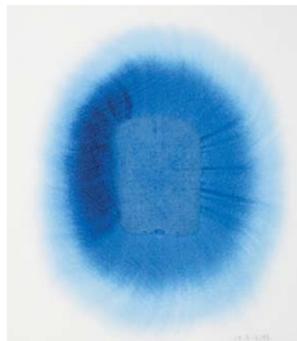
흑백 도트로 이뤄진 정송규의 후기 추상화에서는 수목화처럼 넉넉한 여백이 존재한다. 엄격한 가부장 제도 속에서 살아남아 호남지역 1세대 여성 추상작가로서 어렵게 뿌리 내린 작가 내면의 강한 기조와 자유로운 유희의 감정이 내포돼 있다.

어머니의 보자기를 모티브로 하는 조영대의 회화는 추상화되면서 동시에 정물화라

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그는 선과 색, 빛이 여백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대상의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는가에 집중했다. 작품 '어머니의 보자기' 속 두터운 물감의 깊은 바탕으로부터 올라오는 선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그리움과 슬픔의 원천이자 근원인 모성성을 상징한다.

최정운의 설치작품은 마치 쇠검을 연상케 한다. 작가는 쉽게 부서지고 변화하는 소금이라는 물질로 칼을 대체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무기, 전쟁, 권력, 종교, 역사와 같은 남근적 상징을 무화시킨다. 인간과 자연의 무의식적 욕망을 다루고 본질적인 속성을 끌어내기 위해 대상을 소금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만의 독특한 추상화적 코드다.

사진 작가 한정식이 선택한 작품 명제에는 강원도 원주, 경기도 가평, 황악산 직지사 등 구체적인 지명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는 작품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림으로써 추상화시킨다. 물, 바람, 나뭇잎, 공기, 돌, 파도와 같은 자연의 흐름은 서터와 함께 공(空)의 세계로 회귀한다. /최명진 기자



강운작 '파랑-모개도'



임남진작 '연서'



조영대작 '어머니의 보자기'

ACC 미디어아트 '모두의 도원', 상하이 순회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음달 28일까지 추상하이한국문화원 3층 전시실에서 미디어아트 전시 '모두의 도원'을 개최한다.

ACC는 한국의 시각예술 콘텐츠 확산을 위해 주중한국문화원, 추상하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ACC 창·제작 작품으로 새롭게 기획된 미디어아트 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11월 북경 주중한국문화원 전시에서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순회전지는 ACC에서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사유정원' (관람객 19만명), '물입미감' (관람객 14만명), '하늬풍경' (아



이이남작 '형상 밖으로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서'

외전시) 전시의 창·제작 작품들로 구성됐다.

'모두의 도원'에서는 총 7명 작가의 작품 8점(미디어 7점, 설치 1점)을 선

보인다. 지난해 야외전시 '하늬풍경'의 이이남, '물입미감'에서 디지털 영상 미디어로 재해석된 근현대작가 김규진·이용우, 현재까지 남종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허달재와 2022년 '사유정원' 전시의 고희·서동주·정성운 작가다.

특히 이번 협력전지는 해를 거듭하며 축적된 ACC 창·제작 작품들을 다시 새롭게 기획해 글로벌 무대에서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중국 내 'K-아트'의 우수성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진 기자

'여성, 독립영화'...빛고을 영화계 되돌아보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영화비평지 '씬1980' 19호 발행

(새)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광주영화비평지 '씬1980' (편집장 정찬혁) 19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15회 광주여성영화제, 개관89주년 광주극장영화제, 2024년 광주독립영화관 활동 결산 등 지난해 지역 영화계의 활동을 정리하는 기사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영화 '절해고도' 김미영 감독의 인터뷰 '뿔뿔을 켜는 마음'과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의 영화·삶 이야기를 토크할

수 있는 '딤포커스'가 실려있다.

이번 호 표지는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이선미 광주 청년작가가 참여했다. 관객 참여 코너 '픽앤리슨'에서는 '한국이 싫어서'에 대한 관객들의 감상평을 확인할 수 있다.

감상평 참여는 '씬1980' 공식 인스타그램(@scene_1980)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자에게는 광주독립영화관 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한편 '씬1980'은 광주독립영화관, 광



주극장을 비롯해 책과 생활, 소년의 서, 이것은 서점이다, 더숲아트시네마(서울), 무사극장(부산), 너른벽(경주) 등에 무료로 배포 중이다.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도 '씬1980' 전권을 열람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